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국인들 강한 경제에도 실망
- Bloomberg: 작년 미 무역적자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낮아
- Bloomberg: 미네아폴리스 은행총재, “올해 두세차례 금리 인하 절적할 듯”

#### [미국 금융]

- CNBC: 신용카드 연체 작년에 급증

#### [뉴욕]

- Bloomberg: 뉴욕시 맨해튼 15불 혼잡세 빠르면 6월 중순 시행

#### [주택]

- CNBC: 주간 주택 모기지 수요 주춤, 이자율 상승으로

#### [미중 경제]

- WSJ: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효과는 두고 봐야...
- WSJ: 미국, 자국 내 중국 태양광 기업들에 복잡한 심경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isness: 미 기업들, 불확실성에 유동성 확보에 나서다
- WSJ: 물류 업계, 화물 수요 약세에도 고용 증가해
- WSJ: LG화학, GM과 190억 달러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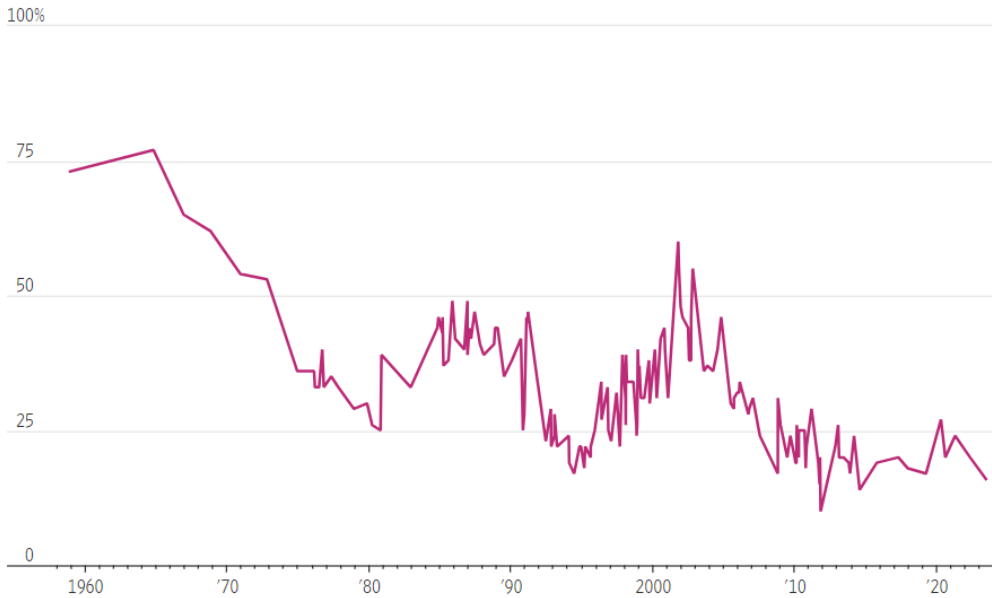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Why Americans Are So Down on a Strong Economy

##### 미국인들 강한 경제에도 실망

- 많은 미국인들은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자신들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이 불안정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 WSJ의 미국인들 대상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미국인, 예컨대 경제적 부자 가난한자, 학위 여부, 정당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은 정부나 기업 중 누구도 불안정한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는 것이다.

Percentage of Americans who say they trust the government always or most of th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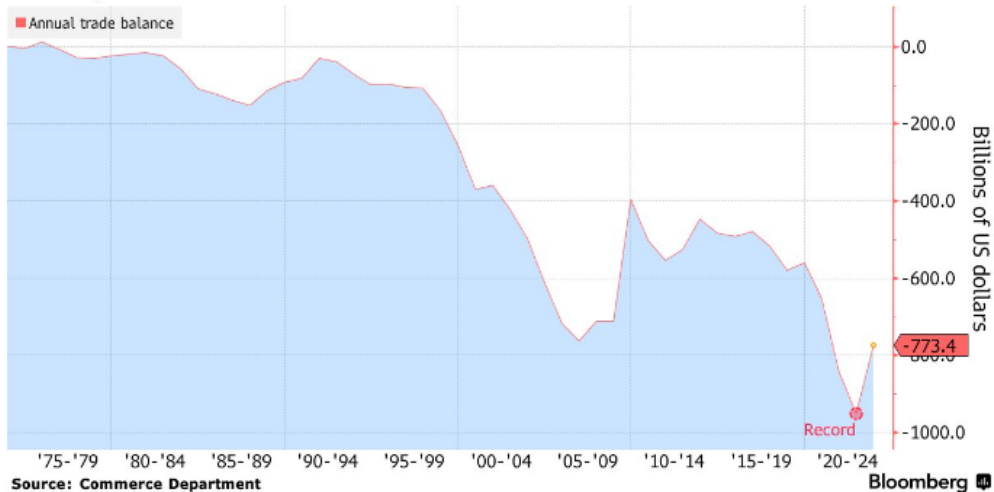
Sources: Pew Research Center, National Election Studies, Gallup, ABC/Washington Post, CBS/New York Times, and CNN Polls via the Pew Research Center

WSJ 기사

**Bloomberg: US Trade Deficit Narrowed Last Year by the Most Since 2009**  
작년 미 무역적자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낮아

- 작년에 미국 수입품 가치가 하락하고 서비스 흑자가 발생하면서 미 적자폭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줄었다.
-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연간 무역 적자가 전년도에 기록적인 수치에 비해 19% 줄어든 7천7백34억불에 달했다.
- 이는 기업들이 재고 축적을 제한하고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은 팬데믹 때 상품 수요를 늘렸으나 이제는 소비 선호도를 서비스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US Trade Deficit Narrows Most Since 2009**  
Annual goods and services shortfall shrank about 19% in 2023



Source: Commerce Department

Bloomberg

##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Kashkari Sees Two to Three Rate Cuts as Appropriate in 2024****미네아폴리스 은행총재, “올해 두세차례 금리 인하 절적할 듯”**

-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총재인 Neel Kashkari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향후 수개월동안 더 인플레이 데이터를 연준 관리들이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두세차례 낮추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향후 노동시장은 상황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CNBC: Credit card delinquencies surged in 2023, indicating ‘financial stress,’ New York Fed says****신용카드 연체 작년에 급증**

- 뉴욕 연방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50% 이상 증가해 17조 5천억불에 달했다는 것이다.
- 분기별 관련 총 부채는 2천1백20억불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1.2%, 1년전 보다는 약 3.6% 늘었다.

## CNBC 기사

**[뉴욕]****Bloomberg: New York's \$15 Congestion Pricing Aims for Mid-June Start Date****뉴욕시 맨해튼 15불 혼잡세 빠르면 6월 중순 시행**

- 이같은 시행에 소송을 제기한 재판 심리에서 뉴욕 MTA공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빠르면 오는 6월 중순 혼잡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Mark Chertok 변호사는 또한 판사에게 3월말까지 최종 통행료 구조를 MTA가 결정 지을수 있다고 밝혔다.

## Bloomberg 기사

**[주택]**

## CNBC: Weekly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is flattening as interest rates rise

### 주간 주택 모기지 수요 주춤, 이자율 상승으로

- 지난주 30년 주택 모기지율이 6.78%에서 6.80%로 올랐다.
- 이와 관련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건수는 전주에 비해 1% 감소했으며 작년 같은주에 비해서는 19% 줄었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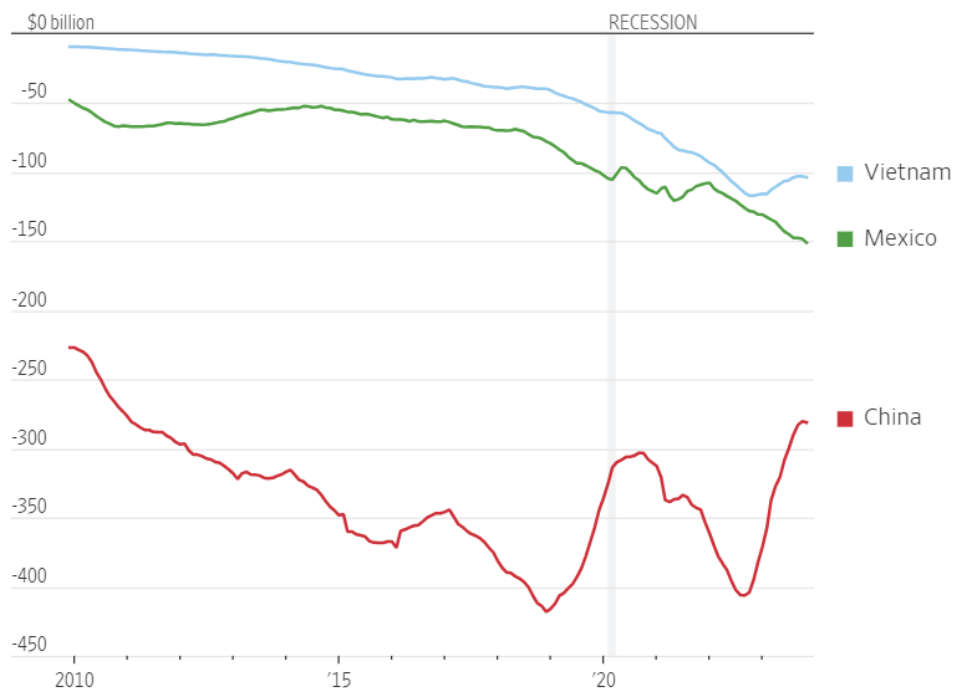
### [미중 경제]

## WSJ: A China-U.S. Decoupling? You Ain't Seen Nothing Yet

###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효과는 두고 봐야...

- 작년 미국의 총 무역적자는 2022년 1조2천억 달러에서 1조 1천억 달러로 감소했다. 적자감소는 대부분 중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적자의 감소는 사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소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많은 제조 업체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생산지를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멕시코와의 적자 규모는 2017년 대비 두배로 뛰었으며, 베트남과의 적자 규모는 거의 3배가 됐다. 베트남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최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미국에서 소비되는 상품 부가가치 중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U.S. trade deficit in goods by country, 12-month total



Source: U.S. Census Bureau via Haver Analytics

## WSJ 기사

**WSJ: America Wanted a Homegrown Solar Industry. China Is Building a Lot of It.****미국, 자국 내 중국 태양광 기업들에 복잡한 심경**

- 수년 동안 미국은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장벽을 높여왔지만, 이제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다.
- 중국 기업들은 작년에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에 패널 공장을 짓거나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상당한 생산 보조금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약 80기가와트의 신규 태양광 패널 중 4분의 1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공장이 모두 건설되면 연간 총 14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패널 생산 확대는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복잡한 심경을 일으키고 있다.

##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N Business: US companies are still worried about an economic shock****미 기업들, 불확실성에 유동성 확보에 나서다**

-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미국 기업들은 작년 상반기까지 보유 현금을 13% 가까이 늘릴 정도로 현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 Dartmouth's Tuck 경영대학원의 Vijay Govindarajan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 JP모건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올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유동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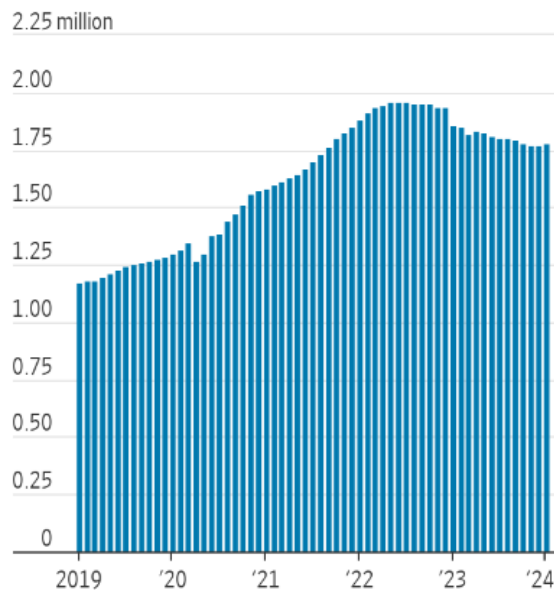
## CNN Business 기사

**WSJ: Logistics Hiring Ticks Up Despite Soft Freight Demand**

## 물류 업계, 화물 수요 약세에도 고용 증가해

- 물류 기업들이 업계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줄여왔지만, 올해 1월엔 다시 고용을 늘렸다.
- 미 노동통계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트럭 운송, 창고 및 택배 업체들이 12월부터 1월까지 1만 7백개의 일자리를 더한 것이다.
- Zip Recruiter의 수석 경제학자인 Julia Pollak는 지난 물류 업계의 고용 감소는 수요가 급증해 확장했던 산업이 이제 정상적인 활동 수준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월의 고용 증가는 업계 위축과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말했다.

Monthly employment in the warehousing and storage industry in the U.S.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WSJ 기사

## WSJ: LG Chem, GM Sign \$19 Billion Cathode Supply Deal LG화학, GM과 190억 달러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 LG화학이 오늘 수요일, 2026년부터 약 5백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5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GM 1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24조 7천5백억원(1백86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 이 기업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한 테네시스 주의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부터 연간 최대 6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된다.
- 이번 계약은 지난 10월 토요타에 20억 달러 이상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하커 "인플레이션 둔화·강한 노동시장...미 경제 연착륙 가시화"****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우리 목적지의 활주로가 눈에 들어온 상황"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 안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둔화와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지적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커 총재는 이날 미 뉴저지주 로완대학교에서 가진 강연에서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노동시장 균형 회복, 탄력적인 소비자 지출 등 연착륙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연착륙한 것은 아니어서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고용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도 회복세여서 우리 목적지의 활주로가 눈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